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거짓을 행치 말라

(말라기 2:10-16)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더럽힌 그들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잡혼은 거룩을 무시하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진실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가 서로 진실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형제를 속이거나 형제와의 약속을 쉽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형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실치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심령을 지키고 거짓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신성한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룩한 약속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과 가증한 것에 대해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합니다.

1. 잡혼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11절).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거짓을 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12절).

하나님께서 잡혼을 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국적을 상실한다는 뜻일 뿐 아니라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결을 더럽힌 그들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나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룰 수 있습니까? 잡혼은 거룩을 무시하는 악행입니다.

잡혼은 신학적 표현으로 혼합종교며 종교적 다원주의(pluralism)이고 포스트모더니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란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인데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을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종교다원주의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장막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 이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16절).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런 일을 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 19:8).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한 자와의 이혼은 허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맞지 않는 자와 이혼을 해도 좋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가 배우자로 인하여 거룩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역시 불신자라도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불행으로 치달

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와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13절).

하나님께서서는 이혼한 사람이 드리는 헌물은 받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러한 일을 행했다면 이전의 일은 모두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7-28).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여자를 만드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문화명령을 내리셨으며 또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

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15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한 명씩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성을 깨뜨린 이혼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혼은 다른 죄까지 끌고와서 사회적인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는 다른 모든 제도를 위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가 깨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흔들리고 깨어지게 됩니다.

결혼은 육체적인 결합일 뿐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감정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혼 신성을 무시하다가 마침내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관계를 파괴시키기보다 개인적 불행을 참고 사는 것이 낫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14-15).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결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중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범하는 일이 됩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신앙을 버리는 일과 같습니다.

이혼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관계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입니다.

잡혼과 이혼은 곧 거짓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피폐한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5년 농어촌 100교회 운동 - 146개 교회 결연

선교위원회에서는 금년 농어촌 100교회 운동 결연교회를 146개 교회로 마감하였다. 자매 교회명은 순례자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선교후원금 봉투(202호 앞에 비치)와 후원자 안내공문을 통해 주소와 연락처를 공고하였다. 어려운 경제사정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100교회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민족의 복음화운동에 적극 기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결연된 교회들에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전까지 선교비를 송금하고 월 1회 기도제목과 선교비 영수증, 교회 현황이 기록된 선

교 보고서를 받게 된다. 따라서 후원 성도들은 가급적 매월 둘째 주일 까지 헌금을 하여 주시면 된다. 100교회 운동은 자립이 어려운 농어촌 교회를 도시교회의 성도 개인이나 단체가 결연을 맺어 직접 물질로 도울 뿐 아니라 지속적 관심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동참하여 아직도 여러 곳에 남아있는 고질적인 미신과 악령을 결박하여 믿음의 고향인 농어촌에 기독교 문화를 가꾸고 꽃피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부 겨울수련회

1월21일(금) 오후7시 교회출발

청년부(부장:최차순 집사, 지도:오정식 목사)는 1월21일(금) 저녁7시 갈보리 금식기도원에서 <Acts Youth-기도의 전사가 되자>를 주제로 1박2일간 뜨거운 기도의 수련회를 갖는다. 기도가 필요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든

것을 아뢰고 응답받고 기도의 전사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겨울수련회에 참석을 원하는 청년들은 21일(금) 저녁 7시까지 교회로 모이면 된다. 준비물은 성경찬송과 같이 입을 옷 그리고 은혜 받고자 기도하는 마음이다.

2005년 위원장에게 듣는다

찬양의 잔물결이...



임상헌 장로(찬양위원장)

오래 전 미국에서 체류할 때 pay it forward 라는 영화를 감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엔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로 지역하면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으라는 뜻인데 마치 연못에 돌이 던져지면 잔물결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감동 어린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은밀한 가운데 돌려 갚게 함으로서 결국 이 사회에 기하급수적으로 사랑과 감사의 잔물결이 계속 확산되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새해에도 우리 찬양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로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찬양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서 우리의 연습과 정성의 부족 때문에 예배를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열심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찬양대 안에서는 찬양대원 상호간에 위와 같은 사랑과 감동의 훈훈한 잔물결이 계속 이어져 가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대원들께서는 세움을 받은 임원들에게만 모든 일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굶은일을 찾아 은밀한 가운데 다른 대원을 도와줌으로써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 수 있는대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 되는대로 선한 말만 하여 후시라도 대원 상호간에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해 들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닐까요.

주님의 발이요 대언하는 나팔!



윤찬오 장로(전도위원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위대한 지상 대명령으로서 적당히 홀러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누구도 회피 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으로 온 천하 만민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 매일 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이요 대언하는 나팔입니다.

서울교회 2010년 목표는 선교사 100명 파송, 주일학교 학생 1만명 출석인데 이를 위해 2005년에는 새가족 3000명 등록, 14개 남녀 선교·전도회의 배가와 활성화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자 아래와 같이 몇가지 사항을 실천코자 합니다.

첫째, 각 교구 간사, 다락방장, 각 교회학교 교사, 피택중직자(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필히 전도학교를 이수할 것

둘째, 전도학교 수료자는 70인 전도대, 수요 노방전도대, 수요 야간전도대, 목요 축호 전도대, 토요일 오후·야간 전도대, 기도 후원 중보팀에 자원하여 봉사할 것.

셋째, 70인 전도대는 전도의 핵심 역군으로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 기도회와 전도전략 세미나, 영성 훈련 및 수련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정예화 된 주력부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

넷째, 교회학교, 각 교구, 다락방, 남녀 선교·전도회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전교인 전도 폭박에 힘쓸 것.

전교인 1인 5명 이상을 전도하여 새가족으로 등록시켜 목표를 초과 달성 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전도하는 역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망의 2005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05년 중요 행사계획표

일	일	내용
1월		겨울 성경학교·수련회(1~2월 중)
2월	13(주)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
3월	7(월)~5.9(월) 7(월)~5.9(월) 27(주)	제27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제17학기 서울성경대학 부활절 감사예배
4월	12(화)	교사 교육 및 연합기도회
5월	5(목) 20(금)	전교인 체육대회 찬양대원세미나
6월	6(월)~25(토)	2005년 총회작전
7월	3(주) 5(화)~10(주)	맥추감사절 KIMCHI 신학세미나
8월	1(월) 9(화)~12(금) 14(주) 15(월)	여름성경학교·수련회(7~8월중) 5기단기선교팀 파송 농촌전도단 파송 후반기 장학금 수여식 당회원 수련회
9월	5(월)~11.7(월) 5(월)~11.7(월) 7(수)~9(금)	제28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제18학기 서울성경대학 2005년 바자
10월	9(주)~11.27(주) 14(금) 23(주), 28(금)	2005년 사명자 대회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2005년 성경암송대회(빌립보서)
11월	13일(주) 20(주) 27일(주)	추수감사 및 교회설립 제 14주년 감사 - 중, 고, 대, 청부 특별순서 추수감사 및 교회설립 제 14주년 감사 - 감사찬양예배(임마누엘 찬양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제 14주년 감사주일 - 감사예배 및 성찬식 헌당예배(찬양예배 시)
12월	4(주) 11(주), 14(수) 18(주) 16(금) 23(금) 24(토) 25(주) 26(월)~27(화)	서리집사·교구일꾼 임명 찬양대원임명 교사임명 찬양대 총회 교사총회 성탄절야행사 성탄절 각 부 교회학교 졸업 장로·권사은퇴·장로안식년 교역자 수련회

1월 성경통독자 시상 찬양예배 시간에

<3독>

황규영 성도(1교구) 하정자 권사(6교구)

<1독>

박찬성 성도(1교구) 최규초 집사(2교구)

김희진 권사(6교구) 임귀순 권사(6교구)

김현주 집사(9교구) 조정옥 집사(11교구)

손성실 집사(13교구) 이경희 집사(13교구)

이정희 집사(13교구) 정여연 성도(고등부) 이상 12명

에바다부 수화교실 개강

초급반

· 일시: 1월16일(주)~6월19일(주) 매주일

· 시간: 오후 1시~1시50분

· 장소: 606호

중급반

· 일시: 1월16일(주)~6월19일(주) 매주일

· 시간: 오후 1시~1시50분

· 장소: 705호

2005년을 이끌 일꾼들에게 듣는다!



이애순 권사(에스더 여전도회 회장)

부족한 사람을 2005년도 에스더 여전도회를 앞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막상 중책을 맡고 보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잡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하여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기

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임원들의 도움을 힘입어 임직원 선임과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주할 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할 수 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달려 가겠습니다.

2005년도 표어인 "교회, 세상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어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으로 어두운 세상의 나침반으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심정으로 회원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차적으로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전도학

교에 입학하여 교육도 받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현당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때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여전도회 모든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대하면서 일 년 365일을 길게 생각하기 보다는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물주고 가꾸듯 생명을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손병석 집사(엘리아 남선교회회장)

새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말끔히 떨쳐버리도록 몸부림 쳐보아도 또 다시 해를 두른 구름처럼 과거지향적이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이웃에 무관심하고, 세상의 근심걱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새해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 중에 "세상 끝 날이 가까

울수록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 24:12)",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그제야 끝이 오리라" 따라서 먼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엘리아 선교회 모임부터 열심히 참석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소중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편지하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禍)가 미친다(고전 9:10)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해 무관심한 가운데 선교회 참석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열심을 품고 사명 감당할 환경을 조성해 주도록 간절히 간구할 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길 믿습니다. 엘리아 남선교회 회원은 1946년 생에서 1950년생까지 성도들이 해당되며 한상은 지도목사님을 모시고 7개부로 각 부장 중심으로 선교와 전

도, 회원관리, 교회지원 등 사업계획에 의거 매월 1회 월례회로 모여 회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은 가족과 함께한 성탄축하 모임을 통해 회원들이 교제하고 부부가 함께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섬하시는 참 좋으신 분(마 25:40)이기에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후히 주실 줄 믿고 회원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여 잘 했다 칭찬받는 한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황유석(청년부회장)

부족한 저를 서울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의 어리고 약한 모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과 모든 부족함을 넘

치는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보다는 채우실 은혜와 능력의 충만함에 의지하여 기대와 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실패한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다. 반대로,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의지하여 골리앗을 쳐죽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사로잡힌 상상력과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일과 사람, 행사준비로 분주해 지기보다는 수십만 군대가 대치한 가운데에서도 시냇가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주머니에 돌맹이를 집어넣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그의 영성을 소유하기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회원들의 내면과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주며 기독청년으로서의 삶의 고충을 이해하고 내면세계를 굳게 하며 영

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기에 힘쓰겠습니다.

회장으로 선두에 서서 인내하고 눈물 흘리며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복이 무엇인지를 실천함으로써 참된 리더쉽을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05년 한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기도와 찬양, 전도, 구제와 봉사, 교제의 기둥을 세우고 주인되시는 주님과 우리 청년부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노재군(대학부회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회장 당선 소감 표하는 그 시간에 왜 그렇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죄스럽게 생각됩니다. 솔직히 그 자리에

섰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감사보다는 부담감이었습니다. 2년 동안 임원을 하면서 대학부 사람들에게 많은 식상함을 주었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할 것 같지는 않았기에 나 때문에 대학부를 향한 관심이, 열정이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소견 발표를 위해 썼을 때 든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라는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그리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한 힘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배워서도 알고 있던 것이고 임원을 하

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글분분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내게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착각하고 나를 보고 사람들이 기대하길 바랬던 내 교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005년도에 대학부에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대학부 모든 이들이 함께 기대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기도합니다.

찬목시민양성 - 고등부에 올라가며...

내게 가장 즐거운 시간

홍지혜(고등부)

중등부에 비해 조금은 의젓해진 제가 고등부로 올라온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중등부의 체일 언니였고 중등부 찬양팀을 하고 있으면서 체일 시간이 흘러가지 않고 멈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고등부로 올라와 NLC(고등부 찬양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친했던 친구들과 반이 다 갈라져 조금은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 새로운 반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등부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 모든 언니, 오빠들이 둥그렇게 모여서 악수를 했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긴장되지만 했던 언니, 오빠들 앞에서 이제 친언니, 오빠처럼 느껴질 만큼 많이 도와줘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반이 되어서 맨 앞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좀 더 말씀을 잘 들으려 다짐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무척 커서도 놀라기도 했지만 설교 내용도 재미있었고, 마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았지만 목사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져 앞으로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공부 자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고등부로 올라가서 몸과 마음이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자라나길 기도하며 저는 교회 가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박경의 권사(3교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지난 한 해였습니다.

2004년도 권사회장으로 임명받고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인 저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지엄하신 말씀으로 저를 꾸짖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작은 소자를 붙잡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주셨으며 최전을 다하자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해를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치아수술도 잠시 중단하고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화평을 찾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임역원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회자세미나 25,

26학기를 충성으로 봉사하고 주어진 대소사를 믿음으로 헌신하여 한 해를 대과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 교회 설립 기념일에 현당하기위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허리를 동어매는데 우리 권사회도 힘을 모아야 하겠다는 회원님들의 여망을 힘입어 모든 지출을 긴축하여 결산 후 잔액으로 오백만원용 건축현금으로 드리게 됨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한 기쁨과 감사를 드렸으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나 저도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한 해였으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말씀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

고등부 아이노스의 밤에 초대합니다

1월 22일 (토) 저녁 5시 101호에서

2005년 1월 22일 토요일 저녁 5시 고등부 학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101호에서 선포합니다. 지난 몇 주간 바쁜 학업 중에도 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열심히 연습해왔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오시면 아름다운 찬양과 가슴 찡한 성극, 재미있는 풍드, 신나는 워십 댄스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연이 끝난 뒤에는 다과와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 고등부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고등학생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학부모님, 아이들이 정성껏 마련한 잔치에 함께해주시시오. 성도여러분, 토요일 밤 고등부 아이들의 가족이 되셔서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만한, 서울교회 가족 여러분이 감동받으실만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고등부 복음잔치, 아이노스의 밤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오정식 목사(고등부 지도)

2005년 농어촌100교회후원현황 (마감)

번호	교회명	목의자(목/전)	후원자
134	신원교회	유지인(목)	1-12/김용환, 김수원
135	살롬교회	김춘식(목)	김정호, 김신영
136	팔복반(보통)고등부	김상철	김상철, 최원자
137	월전교회	문경두(목)	권사회
138	샘물교회	최재충(목)	권사회
139	성광교회B	서종일(목)	대학부
140	충현교회	최석수(목)	오치열, 허숙
141	531탄약대교회	김원수(목)	김윤영, 소연, 세환
142	고성진부령교회	주수원(목)	초등부
143	늘사랑일터비둘기집	이승찬(목)	1-24/김종운
144	대동교회	한영(목)	이복규, 한명순
145	아마존교회	강명관(목)	안본선
146	사목벤엘교회	김진우(목)	김현성, 장은숙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0일(목) 한국 로잔중앙위원회를 소집한다
- 이종봉 성도(에바다부) 호주 멜버른 세계 농아올림픽대회 배드민턴 단 체전에서 금메달 획득
- 득녀: 이용철 성도 전미혜 성도(14교구)
- 득남: 안인선 강혜진 성도(5교구)
- 승진: 전인상성도(1교구) 삼성 SDI 상무이사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 여전도회(1월16일) 뫼비여전도회(1월23일)
- 금주의 식사: 손종근 집사 최은석 집사 가정 (부모님 정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 KJT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서울교회, 세상의 소망 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4. 국론 통일과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사백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